

<서평>

낮선 언어에서 삶의 모습 찾아내기
: 이성훈, 『해녀노래 주석사전 : 제주 방언의
보고』(민속원, 2018)

한창훈*

1.

오랜 기간 제주 해녀¹⁾를 연구한 이성훈 선생이, 846면에 이르고 대형판본인 『해녀노래 주석 사전 : 제주 방언의 보고』를 출간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해녀노래는 해녀들이 돛배를 타고 뱃물질 하러 오갈 때 노를 저으며 불렀던 노동요이다. 제주 해녀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지만, 예전의 모습이나 그 위세를 그대로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때문에 해녀를 연구하고자 할 때에는 현장을 철저히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형의 문화유산을 언어화 혹은 영상화해두는 노력이 필요하고, 당연히 해녀노래를 포함한 민요나 설화 등을 문헌화해 두어야 한다.

많은 한국의 무형 문화유산 중에서도 손꼽을 만큼 중요한 것으로

* ‘해녀’라는 용어는 일반화되어 많이 쓰이고 있지만, 학문적으로는 여러 논란이 있다. 서평자는 이들을 가리키는 용어로 잠수(潛嫂)를 사용한다. 그러나 본 서평에서는 필자의 입장을 존중하여 일관되게 ‘해녀’라고 한다.

민요를 들 수 있다. 민요는 전통 사회의 생활상 필요에 의해 불리는 것으로, 그 시대와 사회의 산업, 풍토, 관습 가치관 등이 올곧게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민요는 기능, 창곡, 사설과 같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당연히 이를 총체적으로 접근해 들어가는 연구를 통해 그 실상을 드러낼 수 있다. 그러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욕구에 의해, 그 동안의 연구는 이 중에서 그 어느 하나에 주목하는 형태를 띠고 있었다.

한국 민요를 대상으로 하여 사설 분석을 중심으로 하는 문학적 연구 중에서, 초기이면서도 중요한 업적에 속하는 것으로, 우리는 고정옥 선생(1949)의 『조선 민요 연구』를 들 수 있다. 그 당시까지 알려진 대부분의 한국 민요를 대상으로 하여 체계적인 접근으로 이루어진 이 연구는 민요의 연구는 물론 한국 구비 문학의 연구 성과를 한껏 높인 바 있다. 이후에 임동권 등에 의해 한국의 민요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성격이 하나씩 그 모습을 드러낸 바 있다.

이후 김영돈 선생(1965)이 제주도라는 지역에 집중하여, 제주 민요의 총체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설 채록집인 『제주도 민요 연구(上)』을 출판했다. 이른 시기 획기적인 업적으로 평가되는 이 자료집에는 한반도 본토에 전승되는 민요와 그 양과 질에서 크게 변별되는 제주 민요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다. 여기에 특히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해녀 노래인데, 바로 이 지점이 김영돈 선생이 제주 해녀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게 된 이유로 생각된다. 그는 이후 민요 연구에 그치지 않고 민요의 주체 즉 제주 해녀를 총체적인 관점에서 오랜 기간 연구하여 그 결과를 출간하기도 했다. (김영돈, 1999)

이처럼 민요의 수집이나 채록 등은 이미 선학들에 의해 적지 않은 성과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훈 선생의 책이 갖는 가치는 무엇인가? 그것은 제주 방언이 가지고 있는 언어적 장벽 때문이

낮선 언어에서 삶의 모습 찾아내기
: 이성훈, 『해녀노래 주석사전 : 제주 방언의 보고』(민속원, 2018)

다. 특히 민요는 언어를 노래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언어적 장벽이 더욱 강하게 드러난다. 때문에 어휘의 주석 작업이 철저하게 이루어진 이 책은 그 가치가 더욱 크게 느껴진다. 이 책은 2015년까지 간행된 대부분의 해녀노래를 망라하고 집대성하여 난해한 사설 어휘에 상세한 주석을 붙인 것이다. 대단한 공력을 필요로 하지만, 연구자들이 쉽게 시도하지 않는 일을 이성훈 선생은 특유의 뚝심으로 도전하여 그 결실을 맺었다.

2.

필자는 제주도 조천 출신으로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를 졸업하고 숭실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평자도 제주도 조천 출신으로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를 졸업한 필자의 후배이지만, 아주 오랜 세월을 제주에서 보낸 토박이는 아니며, 현재도 15년째 전라북도 전주에서 살고 있다. 서평자의 성장 과정에는 제주는 물론이거니와 부산, 서울, 광주, 전주 등이 많은 비중을 두고 얹혀 있다. 이런 와중에 학문적으로 ‘제주학’에 관심을 갖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와 (사) 제주학회와의 인연에 있다. 특히 (사) 제주학회는 (육지 지역 당당) 간사를 시작으로 20여 년의 구체적 인연을 맺고 있는데, 단순히 고향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한 행정적 서비스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이런 생각이 대학에서의 공식적인 전공 분야 이외로 일종의 지역학에 해당하는 ‘제주학’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좀 남사스럽긴 하지만, 개인적 체험을 들어 생각해 보자. 제주 사람으로서 소위 방언의 문제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부산에서 학교를 다니다, 중

학교 3학년 때 다시 제주로 전학 온 서평자에게 당시 사회과 선생님이 공식적으로 처음 질문한 사항이 ‘철마는 달리고 싶다’를 제주 방언으로 말해 보라는 것이었다. 대답하지 못한 나는 반의 웃음거리가 되었고, 이후 학교 생활 적응에 큰 장애가 되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문제는 반 친구들 중에서 정답을 아는 이가 극히 드물었다는 것이다.

서울에 가면 제주 사람들은 어설피지만 곧바로 표준어에 적응한다. 영남 사람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그런데 학교에 가면 사람들은 모두 제주 방언을 궁급해 한다. 호기심 차원이 대부분이지만, 의외로 상황이 심각하게 번지는 때도 있다. 가령 국문학과 대학원생이 국어학을 전공하면 대개 제주 방언을 대상으로 논문을 쓰라는 권유를 많이 받는다. 특이해 보이기도 하고 자료 상황에 대해 심사위원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하니 심사 대상자는 유혹을 많이 받는다. 마치 영어학을 전공하러 미국에 갔다가 한국어를 대상으로 논문을 쓰는 많은 유학생들의 경우와 흡사하다. 문제는 단지 제주 사람이기 때문에 제주 방언으로 논문을 쓰면 좋은 논문이 나오냐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서평자의 관찰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고전이나 민속학을 전공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민요나 무가 등이 제주가 특이하니 이를 가지고 논문을 써보라는 주문이다. 현대 문학에서 최근 강조되고 있는 지역 문학의 경우도 상황은 비슷하다. 사회과학도 마찬가지이다. 상황이 이러니 제주에 관련된 연구물을 필요로 할 때 많은 이들의 우선 관심이 제주대학교에 쏠리게 된다. 사실 그 지역에 대한 학술적 관심이 그 지역대학에 쏠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문제는 그 실질적인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바로 연구에 들어가면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도 제주의 특이성을 드러내는데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된다.

다시 개인적 체험으로 돌아가자. 서평자가 제주도에 관한 책으로

낮선 언어에서 삶의 모습 찾아내기
: 이성훈, 『해녀노래 주석사전 : 제주 방언의 보고』(민속원, 2018)

제일 먼저 산 책이 무엇인고 하니,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에서 발행한 총서 2권으로 『제주설화집성』이라는 두꺼운 책이다. 검은색 하드 커버의 그 책을 필자는 꽤 열심히 읽었으나 읽어내기가 버거웠다. 제주 방언이 그대로 표기되었던 탓이다. 물론 그 때의 독서 경험은 이후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학술조사와 『백록어문』에 실리는 조사 보고서 등의 작성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서평자가 알고 있는 제주어 표기법도 대부분 그 책에 의거한 것이다. 가장 최근의 학술 논의를 보더라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히 그 책은 뒷전에 밀리게 되었는데, 결국 서평자가 전주에 정착하면서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다. 전북대학교 최전승 교수는 대를 이어 한국 방언을 공부하시는 분인데, 제주 방언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시는 그는 내가 부임하자마자 그동안의 궁금증을 털어놓으셨다. 한 예로 『제주설화집성』을 거의 통독하신 그는 곳곳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빨간 줄을 쳐놓고 계시다 나한테 자문을 구한 것이다. 거의 20여 년 동안 그어진 곳곳의 빨간 밑줄은 결국 나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다. 결국 열심히 방언 공부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여기서 서평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제주 방언을 모르는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자료 조사는 학술적으로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작업의 단계상 처음에는 원래의 모습을 그대로 전사할 경우가 있다. 그러나 모든 자료가 원어로만 표기되어서는 극소수의 전문가 집단이 아니고서는 자료로 활용하기 곤란하다. 필자는 현용준·현승환 역주, 『제주도 무가』(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97)에 대한 서평을 쓴 적이 있는데²⁾, 그 이유는 서평자가 그 기관의 연구원이었거나 제주 사람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이런 요구를 그 책이

2) 그 서평은 이후 한창훈(2009)에 재수록 되었다.

잘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서평자도 몇 번 참가했지만, 가령 『백록어문』에 실리는 학술 답사 보고서의 문제는 자료가 그대로 전사되어 있어서,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은 접근하기 어렵고,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은 다시 확인 조사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라 다닌다는 것이다. 제주도에서 산출되는 제주 관련 자료는 제주와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도 파악할 수 있게 가공되어야 한다.³⁾ 비교적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현기영, 현길언 소설에도 가끔 대화에 표준어 역이 실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같은 이치라 할 수 있다.

이번 이성훈 선생의 책에는 구좌읍 김녕리 현지학술조사보고서에 채록된 해녀노래에 대해 상세한 주석이 붙어 있다. (449-451쪽) 이 자료는 1988년 7월 27일-30일에 제주대 국어교육과 학생들에 의해 조사되었으며, 『백록어문』 6집에 실려 발간되었다. 자료집에는 이 이상의 정보는 없다. 그런데 당시 조사원 팀장이었으며, 사설을 정리하여 제출한 이가 바로 서평자 였기에 당시의 상황을 생생히 기억한다. 김경성, 김순녀 두 제보자에 의해 이루어진 민요 수집은 3회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처음에는 제보자들의 소극적인 참여로 애를 많이 먹었다. 그런데 당시 제주대 국문학과 교수였던 김영돈 선생이 전격적으로(?) 김녕리를 방문하고 제보자들을 설득하여, 둘째날 조사는 순조롭게 마칠 수 있었다. 기대되던 마지막 날에는 예정에 없던 제주대 음악학과 학생들과의 공동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구연 자체는 잘 되었으나 너무 음악적인 연행에 치우쳐 사설 조사가 목적인 민요반은 자료 전사에 엄청나게 고생하였다.

이런 기억이 있기에 ‘뭇 후리는 노래’로 통칭되는 본 자료에 대해

3) 기존 제주학의 연구 중에서 자료적 가치를 높게 인정받는 대표적 업적 인 현용준(1980) 『제주도무속자료사전』의 1/3가량이 주석임을 다시 생각해보자. 제주 사람이 아니고 때문에 제주 방언을 잘 모르는 이수자의 이화여대 박사 논문은 이 책의 주석으로 가능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이후 『제주도 무속을 통해서 본 큰굿 열두거리의 구조적 원형과 신화』로 출간되었다.

낮선 언어에서 삶의 모습 찾아내기
: 이성훈, 『해녀노래 주석사전 : 제주 방언의 보고』(민속원, 2018)

서는 서평자도 평소 그 선이해가 깊다고 착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성훈 선생에 의해 치밀하게 이루어진 주석을 대하니, 이 자료에 대한 서평자의 지식이 얼마나 얕은 것인가 하는 반성을 하게 되었다. 이번 책의 출간으로 학계 일각에 퍼져 있는 주석 작업에 대한 터무니없는 편견이 조금이나마 불식되기를 기대해 본다.

3.

해녀란 ‘바다밭, 곧 지정된 공동어장에 무자백질하여 해조류 등을 캐고 그 수익으로써 생계를 삼거나, 살림에 이바지함을 직업으로 삼는 여인’으로 뜻풀이할 수 있다. 제주도 해안 마을에서 해녀들은 물때에 맞추어서 ‘물질’을 하며, 계절과 농번·농한기의 구분 없이 어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농업 노동을 한다. 거친 파도와 깊은 바다 속에서 특별한 장비도 없이 각종 해산물을 채취하며, 특히 입덧과 출산 전후에도 물질을 한다. 제주 출신 해녀는 제주도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해안 지대 그리고 일본에까지 진출하여 정착하여 살고 있기도 하다. 이들은 출가 물질을 나왔다가 출가지에서 남편을 만나 정착하거나 남편과 함께 이주하여 정착한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기술 문명이 발달한 현대에도 해녀들은 특별한 장비의 도움 없이 1회 2분 정도의 물질을 통해 해산물을 채취한다.

제주 해녀들은 제주 경제의 주춧돌이기도 하다. 최근까지도 제주 해녀의 어획고나 어획량이 제주도 수산업 총소득의 절반 이상을 꾸준히 확보해 오기도 했다. 그리고 이들은 ‘바다밭’으로 대표되는 협동조합적인 성격의 계 모임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오고 있기도 하다. 이런 역사적 사실들은 제주 해녀라는 존재를 특이한 사례로 볼 것이 아니고,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사회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여 고찰해

야 한다는 점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준다.

하여튼 여성이 거의 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맥질만으로 해산물을 채취하는 노동은 제주도의 전통문화의 담론 속에서 줄기를 형성하여 왔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제주 해녀의 진취적이고 강인한 모습을 대단히 높게 평가한다.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기서 서평자는 제주 해녀가 가지고 있는 어두운 그림자도 고려에 넣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말하는 어두운 그림자란 ‘진취적이고 강인한 모습’ 뒤에 숨어 있는 ‘고통스러운 현실적 삶의 모습’을 지칭한다. 물론 제주 해녀가 진취적이고 강인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고, 그 강인함 이면에 존재하는 힘겨운 삶과 시대의 무게를 먼저 읽어내야 한다고 본다. 이 점은 제주 해녀의 항일 투쟁을 소설화 한 현기영(1989)의 『바람타는 섬』에도 같은 원리를 적용할 수 있겠다.

해녀들은 ‘사회적으로 낮은 계급의 무학력자, 전통적 방식의 일을 수행하는 강인한 해안 여성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이들은 현대산업 사회에서 살아가는 여성들’(안미정, 2008)이다. 때문에 ‘제주 여성의 강인함과 해녀들에 관한 담론들은 사회적 배경 속에서 설명될 수 있어야 하며, 이들은 다른 세계의 특수한 존재가 아니며, 그들이 창조해 온 생활 세계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문화적 보편성을 발견’(안미정, 2008)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에는 사회적으로도 천대받던 해녀들이, 그들의 근면하고 강인한 생활상을 중심으로 하여, 오늘날은 제주 여성의 전형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실질적 내용이 동반되지 않은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평가는, 해녀들에게도 초과 노동을 강요하는 이데올로기가 될 수 있고, 제주 여성들에게도 억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제주도가 관광지가 되면서 만들어진, 젊은 여성을 모델로 성적 매력이 강조되는 일부의 상업주의적 이미지화는 해녀들에게도 자기 비하와 소외의 감정을 느끼게 할 수 있다.

낮선 언어에서 삶의 모습 찾아내기
: 이성훈, 『해녀노래 주석사전 : 제주 방언의 보고』(민속원, 2018)

강한 여성으로 자신을 보는 제주 여성들은 한편으로 자신의 실제의 삶과 비교하면서, 이러한 신화적 이미지와 갈등을 겪게 된다. 강한 여성의 이미지 뒤편에 ‘고생하는 여성’, ‘희생하는 여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제주 해녀는 물질, 발일, 가사일 등 현실적으로 고생하면서, 동시에 엄청난 저력을 가진 불굴의 정신력 소유자로 규정될 수 있다. 이는 제주도가 역사적으로 타자와의 권력 관계에서 하위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수탈에 대한 순응과 이에 대한 저항 정신 등의 정체성을 형성해 왔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제주 해녀의 삶은, 우리가 관념적으로 상상하듯이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다. 이들은 물에서 ‘놀이를 즐기는 것’이 아니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 험한 바다에 몸을 던지는 직업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난다. 때문에 이들의 삶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다. 따라서 제주 해녀의 모습이 근면하고 진취적이고 강인하다 하더라도, 그 의미의 실질은 구분되면서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서평자가 보기에 제주 해녀의 가슴에는 한이 골 깊게 자리잡고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들의 진취적이고 강인한 정신은,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기능하는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진취적이고 강인한 그들의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설움과 힘겨움을 고려하지 못한다면, 그 역시 현실과 무관하게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서만 작용하게 된다. 시인 문충성은 「제주바다」에서 ‘누이야 원래 싸움터였다 ... 괴로워 울었다 바다는 / 괴로움을 삭이면서 끝남이 없는 싸움을 울부짖어왔다.’ 고 했으며, ‘제주 사람이 아니고는 진짜 제주 바다를 알 수 없다.’고도 했다. 서평자는 이 전쟁 같은 삶의 최전선에 해녀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제주 해녀의 진면목이 정당하게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낭만적이기 보다는 역사적이고 현실적인 제주 해녀의 진면목이야말로 전 세계에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우리의 문화 유산이다. 아니 문화 유산이 아니라 바로 나의 그

리고 우리의 할머니(할망), 어머니(어명)의 참모습인 것이다.

제주 해녀는 낮선 바다에 뛰어 들어 자신들의 삶을 만들어 나간다. 낮설다는 것은 불안과 공포를 부른다. 사람들은 기분이 좋아 노래를 부르기도 하지만, 힘들고 무서울 때에도 이를 이기기 위하여 노래를 부른다. 노래의 본질은 무엇인가? 노래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 상당한 부분을 언어가 차지하고 있다. 이에 서평자는 낮선 언어에서 삶의 모습을 찾아내기를 기대한다. 낮선 언어가 익숙한 언어가 될 때, 우리는 그곳에서 나와 내 가족, 내 친지의 모습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 출간된 이성훈 선생의 『해녀노래 주석사전 : 제주 방언의 보고』는 제주 해녀의 낮선 언어에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찾아주는 이정표로 기능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오랜 기간 어렵고 힘든 일을 특유의 똑심으로 이루어낸 이성훈 선생에게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올리고자 한다.

낮선 언어에서 삶의 모습 찾아내기
: 이성훈, 『해녀노래 주석사전 : 제주 방언의 보고』(민속원, 2018)

참고문헌

- 고정옥, 1949, 『조선 민요 연구』, 수선사.
김영돈, 1999, 『한국의 해녀』, 민속원.
_____, 1965, 『제주도 민요 연구(上)』, 일조각.
안미정, 2008, 『제주 잠수의 바다밭』, 제주대학교 출판부.
이성훈, 2005, 『해녀의 삶과 그 노래』, 민속원.
_____, 2010, 『해녀 노젓는 소리 연구』, 학고방.
_____, 2014, 『해녀 연구 총서』 1-5권, 학고방.
이수자, 2004, 『제주도 무속을 통해서 본 큰굿 열두거리의 구조적 원형과 신화』, 집문당.
조규익·이성훈, 2005, 『제주도 해녀 노젓는 소리의 본토 전승양상에 관한 조사·연구』, 민속원.
한창훈, 2009, 『고전문학과 교육의 다각적 해석』, 역락.
현기영, 1989, 『바람타는 섬』, 창작과 비평사.
현용준, 1980,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_____, 2007, 『제주도무속자료사전』(개정판), 각.

교신: 한창훈 54896 전라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E-Mail : hanch@jbnu.ac.kr)

논문투고일: 2019. 01. 22

심사완료일: 2019. 01. 24

게재확정일: 2019. 01. 24